사단법인 전국기자협회

전남도민일보

제 3840 호 대표전화 (062) 227-0000 jndomin.kr (음력 09월 23일) 2026년 11월 02일 월요일

㈜하랑A+
전국최고 분양대행 선두주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53, 4층 T.062)673-2900

전남광주512호 병원선 새 출항…섬 주민 건강 지킨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목포 남항 관공선부두서 열린 '전남광주512호 병원선 취항식'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42억 원 들여 노후 병원선 대체

6개 시군·90개 섬 주민 5천여 명 대상 41종 진단 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목포 남항 관공선부두에서 새 병원선 '전남광주512호'를 취항시키고, 서부권 섬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했다.

전남광주512호는 서부권 6개 시군 90개 섬에 거주하는 주민 약 5천 명을 대상으로 의과·한의과·치과 진료와 방사선·임상병리 등 41종의 진단검사를 제공한다. 치매·정신건강 선별검사도 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돕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취항한 전남광주512호는 선령 23년의 노후 병원선인 기존 전남512호를 대체하기 위해 국비 95억 원과 시비 47억 원 등 총 142억 원을 들여 건조했다. 운항 안전성을 높이고 진료 환경을 개선해 섬 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 7월 설계를 시작해 2026년 8월 선박을 인계받았으며, 약 2개월간 시범운항을 거쳐 공식 취항했다.

새 병원선은 기존 170톤급에서 198톤급으로 규모를 확대했으며, 의료진과 섬 주민 등 최대 44명이 승선할 수 있다.

섬 지역의 낮은 수심 등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워터제트 추진기를 장착했으며, 전기복합추진방식(하이브리드)을 적용해 친환경 운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취항식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비롯해 김원이 국회의원, 이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고형우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신안군수, 의료·보건기관 관계자, 섬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건조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명명패 전달, 건조 관계자 감사패 수여, 유공자 표창, 기념사와 축사, 섬 주민 감사 메시지 영상 상영, 테이프 커팅, 병원선 시찰 순으로 진행됐다.

민형배 시장은 "섬에 산다는 이유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선 안 되"며 "어디에 살든 건강할 권리는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취항하는 병원선 전남광주512호가 서부권 섬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의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권에선 전남광주511호가 5개 시군 77개 섬을 순회하며 주민 약 4천 명을 대상으로 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부권 병원선 전남광주511호와 함께 동서부권 섬 주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현대차그룹, 공동주택 주차로봇 시연회 개최

현대차그룹이 29일(목) 경기도 시흥시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에서 공동주택 주차로봇 시연회를 열고, 현대자동차, 현대위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실증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추진 중인 공동주택 주차로봇 실증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실제 주거환경에서의 주차로봇 운영 시나리오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 수원시, 시흥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실증은 실제 공동주택 내 50면 이상 규모의 주차공간에서 주차로봇을 운영하며 운영 가능성을 검증한 국내 첫 사례다.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공간에서 주차로봇의 기술과 서비스를 검증함으로써,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모빌리티 서비스로 구현할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참석자들은 공동주택에서 운영되는 주차로봇과 실증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공동주택과 교통거점, 공공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 주차로봇을 적용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현대차그룹은 실제 공동주택 주차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해 ▲입·출차 교차 ▲이중주차 해소 ▲임시출차 등 총 3가지 시나리오를 시연했다.

입·출차 교차 시나리오에서는 차량의 입차와 출차 요청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구현해, 여러 주차 수요가 겹치는 환경에서 주차로봇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특히 출차는 세대 내 월패드와 연계해, 거주자가 월패드로 출차를 요청하면 주차로봇이 주차된 차량을 출차구역으로 이동시키는 모습을 시연했다. 이 과정에는 약 3분이 소요됐다. 이중주차 해소 시나리오에서는 주차로봇이 차량을 이동·재배치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주차로봇을 활용해 차량 이동에 필요한 공간을 줄이고, 제한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차로봇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산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과 모색할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